Youngeun News

동행

2월

2025년 462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봄 빛”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습니다.

예수님은 암흑을 뚫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빛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장 찬란한
봄빛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 12:46) 듣기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62호 / 2025. 2. 2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 행 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 집 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 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 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 자 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봄 빛"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예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다 / 이승구 담임목사

07 그리스도인의 향기
주님과 함께 함이 기쁨입니다 / 주영희 권사 (223구역)

08 동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의 필요성 〈2〉 /
이규민(장신대 객원교수, 한국통합교육연구소 소장)

10 신앙의 유산 특집
영은설악센터 건축개념 〈2〉 / 한광호 건축사 (예시건아이디엠)

12 믿고 알고 알고 믿고
멘탈 케어 커뮤니티 / 장미애 전도사

13 웹진 동행
엄마, 어디가? 여전도회 월례회~! / 전경애 집사
2024년 성탄절 칸타타를 은혜 중에 마치며 / 서상희 안수집사
아쉬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영아부를 졸업하며 / 채예은 집사

16 영은 소식
예수로 물들다(행10:2) / 양민혁 (청년1부)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싶어요!" / 임승리 어린이 (유년부)

19 선교지 소식
잔디가 잘릴 때 / 구용회 · 백현이 선교사

22 슬기로운 교회생활
교회언어 바로잡기 / 최광주 목사

23 삐딱하게
너, 한국인 아니지? / 이숙경 기자

24 교회안내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다

(로마서 12:1)



글 | 이승구 담임목사

예배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 기도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은 '기도' 입니다. 예배자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① 찬양의 기도

예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창조주와 구세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읽어 보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읽고, 써 보고, 암송하며 여러 번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방식이 기도 가운데서 자연스레 형성되면서 찬양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② 회개의 기도

예배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좇았던 일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무관심한 채 자기 욕심만을 추구했던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능에 따라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1:8~9)

③ 감사의 기도

예배자의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좋은 것으로 풍요롭게 베푸신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심지어 응답하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자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깨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을 훈련해야 합니다. 찬송가 429장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는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세어 보십시오. 지금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④ 간구의 기도

예배자의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 가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형편을 위해서뿐 아니라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2) 찬송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은 '찬송' 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회상하며, 그 성품에서 비롯된 구원과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예배에서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세속적 정서를 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정서와 일치시킵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찬송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까?

먼저 우리를 선택해주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시 135:3~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출 14:30~31)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대가 되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따라 부르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찬송 속에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스며들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3) 헌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은 '헌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헌금과 관련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후 8:2)

마게도냐 교회는 당시의 가혹한 징세와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넘치도록 헌금했습니다. 부자인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환난을 능가하는 영적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고후 8:4/새번역)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자기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난 헌금이었습니다. 물질적 섬김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금을 드릴 때에는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린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고후8:5)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은 기도와 찬송과 헌금입니다.

예배자는 찬양, 고백, 감사,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주심에 대해,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에 대해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드리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함이 기쁨입니다



글 | **주영희** 권사(223구역)

저는 2009년 일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 후 영은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일산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영은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것은 남편의 회사가 교회 부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김영규 집사)은 직업군인으로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지금은 제대를 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근무지를 자주 옮겨다녔기때문에 저희 가족은 지방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것이 어렵기는 했으나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우들을 만나는 것이 제게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의 인도로 자연스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지금도 저희 형제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할 때 믿는 남편, 믿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살면서 시댁 가족들과 신앙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에는 양보를 잘 하는 편이었지만, 신앙의 문제는 물러서지 않고 제 생각을 주장 하였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많은 유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날.

어린 아이들과 지방 소도시 여러 곳을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어려움도 새로운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특히 새로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날들을 생각하며 추억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영은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여전도회와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하는 동역자들과의 만남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합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편의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좌절하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절망하고만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 주셨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동행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의 필요성 〈2〉

글 | 이규민 목사
(장신대 객원교수,
한국통합교육연구소 소장)

[지난호에 이어서]

■ 에니어그램의 공헌 : ‘마음의 눈’을 열어줌

‘에니어그램’은 최소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동양과 서양의 철학, 심리학, 의학, 인간학의 지혜가 융합됨으로써 특정 문화와 지역을 넘어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위에 현대 정신의학, 심리학, 뇌과학의 발견과 통찰이 더해짐으로써 특유의 논리적 체계와 설득력을 갖추게 되었다. 에니어그램은 MBTI나 DISC처럼 일종의 ‘심리유형론’으로 시작하지만, 그 깊이, 확장성, 응용력은 다른 어떤 이론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깊이와 넓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에니어그램은 그 자체로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일종의 관점 또는 고대인간학이 전해준 인류문화유산처럼 전해져 온다. 이는 마치 다양한 발달심리, 성격심리, 상담심리 이론들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도구이며 창문인 것과 같다. 하지만 그 이론을 어떤 관점, 어떤 용도로 해석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열매와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어떤 관점, 방식,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핵의학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문명을 위협하는 핵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같다.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인간이 자신을 들여 다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 에니어그램을 통해 자기의 내적 동기, 무의식적 습관, 자동적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된다. 자신의 진면모를 직면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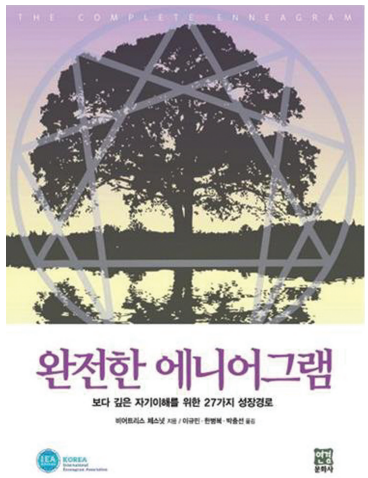
■ 에니어그램을 통한 직면의 두 모습 : 진취적 자세 vs. 방어적 자세

첫째, 자신에 대한 바른 앎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도달을 위해,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자신의 결핍을 그리스도와 신앙공동체를 통해 극복해 가고자 하는 진취적, 적극적 자세이다.

둘째,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자신의 모습과 실제로 발견된 자기 모습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방어적 자세이다. 물론 이런 양면성은 인간 모두에게 공존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동시에 유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에 누구나 어느 정도의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면, 자신의 진면모, 자신의 실제 모습을 거짓이나 과장 없이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 자신의

현 모습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수용과 자기변화는 본회퍼의 '자기정체성', 틸리히의 '존재의 용기'와 같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

■ 일반 에니어그램 vs. 크리스천 에니어그램



체스넛 저, 이규민 외 옮김

일반 에니어그램은 2000년 이상의 인류문화유산과 현대 정신의학, 뇌과학, 심리학이 결합된 보편적 인간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일반 에니어그램은 가치중립적, 종교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기에 어떤 종교, 어떤 전통에 속해있는 누구나 그 유용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은 성경적 증언의 토대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구속-성화-영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일반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보편적 문제와 상황에서 출발한다면,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와 상황에서 출발한다. 일반 에니어그램이 인간의 다양한 방어기제와 허세를 걷어내고 자신 및 현실의 진면모를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면,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은 성경적-그리스도적-신적 관점에서 인간-제자-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치유-회복-성장'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동화시켜 준다.

일반 에니어그램이 원인-결과 중심의 '인과론적' 접근을 강조한다면,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은 하나님 형상 회복 중심의 '목적론적' 접근을 강조한다. 일반 에니어그램과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의 관계성은, 마치 제자들의 '인과론적' 질문 제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론적' 응답 제시와도 같은 모습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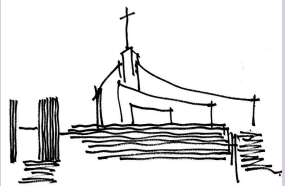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일반 에니어그램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라면,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은 문제의 원인을 넘어 그 문제가 지향하는 보다 큰 목적과 섭리를 '완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나가는 말

지금까지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위해,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반 에니어그램과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의 비교와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실제를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내가 모르던 나를 발견하고, 안다고 생각했던 나를 보다 분명히 알고,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질 때, 서로의 다름이 갈등이 아닌 다채로움과 풍요로움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마음에 담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은총의 통로가 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시작을 마무리해 본다. 동행

신앙의 유산 : 특집

영은설악센터 건축개념 〈2〉



[지난호에 이어]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영은설악센터(2024년 10월 27일 헌당예식)

6. 십자가를 통한 구원



노출콘크리트 십자가는 영은 동산으로 올라가는 산의 모습을 비춥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창호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위치에 계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거대한 노출콘크리트 벽은 외부의 노출콘크리트와 대응하여 실내에 있지만, 실외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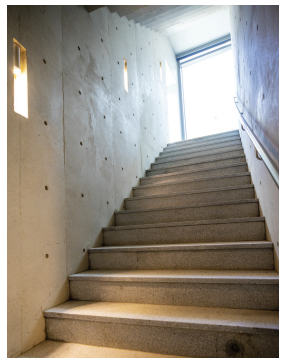
7. 내부를 외부처럼, 외부를 내부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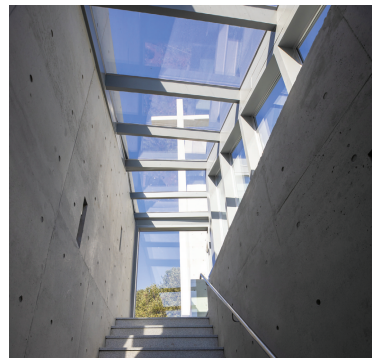
노출콘크리트로 통일된 내 · 외부마감, 천창, 폴딩도어는 내 · 외부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각각의 공간이 실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은마당, 고요마당, 묵상마당, 캠핑마당과 연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8. 횃불을 들고 십자가를 오르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횃불(왼쪽 벽의 매립된 조명)을 들고 십자가에 점점 다가가는 경험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 사계절을 담은 미술관

벽과 천장이 흰색인 모임실은 밖의 경치가 창틀에 의해 작품으로 느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 조그마한 중정을 품은 기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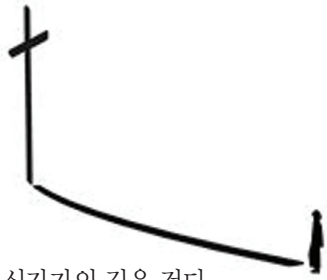
3층 기도실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만을 위한 중정을 계획하였습니다.





11. 영은설악센터 로고

영은설악센터 로고는 십자가로의 길을 건축 형태와 대응하여 형상화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다



십자가를 바라보다



〈글 | 한광호 건축사(예시건아이디엠)〉



멘탈 케어 커뮤니티

글 | 장미애 전도사

한국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신 건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건강한 정신심리적 상태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었고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질병(사도바울도 겪었다. 고후12:7-10), 정신적 우울과 탈진(엘리야도 겪었다. 왕상19:1-18), 정치 사회적 극단적 압박과 스트레스(마르틴 루터도 겪었다) 등을 겪고 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두운 측면들이 있어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은 지난 2주간 우울(23.0%), 불안(21.9%), 중독(7.3%) 순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한 경우도 11.0%나 있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25.0%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인 상당수가 자신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0명 중 46명(4.6%)만 인정했는데, 그중 상담을 받는 사람은 13명, 병원치료를 받는 사람은 22명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11명이나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개신교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진료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은폐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교회가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인들은 교회가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이를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신 건강과 신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위해 정신 건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정신 건강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교회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엄마, 어디가? 여전도회 월례회~!
– 7, 8여전도회를 소개합니다 –

글 | 전경애 집사

지난 12월 15일 주일, 겨울의 중턱에서 7, 8여전도회가 2024년 마지막 월례회로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처소에서 애쓰고 수고함을 격려하며 식탁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 8여전도회는 매월 셋째 주 3부 예배 후에 3층 자모실(2)에서 월례회를 가집니다. 영아부, 초등부 등의 교회학교 봉사를 마치고, 엄마 옆을 떠날 수 없는 막내 아이를 데리고, 가능한 다른 일정들은 미뤄두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모임 장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7, 8여전도회에 속한 집사님과 성도님들은 한창 육아와 일,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보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가 십상입니다. 결혼과 육아의 시절을 지나오며 인간관계는 갈수록 좁아지고, 허심탄회하게 삶과 신앙을 나눌 자리가 간절해집니다. 학부모 모임이나 엄마들과의 브런치도, 직장 동료와의 나눔도 어딘가 아쉬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 아쉬움과 갈급함을 채워주는 곳이 바로 7, 8여전도회라고 자신 있게 외쳐봅니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 남짓한 그 모임에서 우리는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공감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입으로 뱉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묵은 체증이 해소되고 돌덩이 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모임의 백미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었음을 나눌 때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매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점점 소원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아름답다, 최고다, 잘한다”, 칭찬에 목말라 계신가요? 그럼 7, 8여전도회로 오세요. 1년 365일 언제든 환영합니다.



■ 7여전도회 2025년 임원단

회　장 : 권미애 성도

부회장 : 김연경 집사

■ 8여전도회 2025년 임원단

회　장 : 여인영 집사

부회장 : 김아름 집사



2024년 성탄절 칸타타를 은혜 중에 마치며

글 | 서상희 안수집사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1, 2부 예배 시 〈성탄절 갈라 뮤지컬 칸타타〉로 아기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칸타타는 음영부 주관하에 100여 명의 연합찬양대와 영은실내악단, 영은밴드가 연합하여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교회에는 장년 1~4부 예배와 수요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는 임마누엘, 시온, 호산나, 갈릴리, 샤론 등 5개 찬양대가 있다. 〈성탄절 갈라 뮤지컬 칸타타〉는 5개 찬양대가 연합해 연주하였다.

이번 성탄절 칸타타는 뮤지컬 형식의 갈라 칸타타를 연주하여 새로웠다. 국내 손민혜 작곡의 「창수의 크리스마스」 곡을 메인으로, 성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찬양곡으로 준비하였다. 칸타타 연주 중, 솔리스트들의 솔로곡 열창과 연합찬양대의 합창이 한데 어울려 웅장한 소리를 연출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솔리스트: 마리아–이혜련, 요셉–이동현, 헤롯–김지훈).

총 7곡으로 진행된 칸타타는 성탄절 당일 1부 예배 시에는 4곡을, 2부 예배 시에는 7곡의 찬양을 연주하였다. 특히 이번 칸타타의 곡 선정과 지휘와 연습을 진행한 이한주 지휘자와 12주 동안 반주로 섬겨주신 박정미 선생님과 이희승 집사님, 오르간 반주자 김경희 집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영은실내악단과 영은밴드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한다.

아쉬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영아부를 졸업하며

글 | **채예은** 집사



요셉반 여로운과
아빠 여인환, 엄마 채예은

안녕하세요. 요셉반 여로운 엄마 채예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느새 진급식을 하는 영아부 마지막 예배에 오니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2024년 새해가 되어 영아부 새친구 소개 때 인사했던 게 바로 어제 같은데 일 년이 금방 흘러, 로운이도 다른 영아부 친구들도 무럭무럭 자라 유아부 진급을 앞두게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마냥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 같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선한 그분의 방법으로 지나왔던 것 같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들어왔던 영아부에서 초반에 로운이는 많이 울기도 하고 어색해했지만, 사실은 집에서도 영아부 예배를 복습(?)하는 열렬한 예배자였습니다. 설교시간에 인형극을 볼 때는 무서워 울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는 사자를 만난 다니엘 이야기, 물고기 배에 들어간 요나 등등 성경 이야기를 곧잘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 먹기 전에 감사찬양 드리는 것, 눈 꼭 감고 기도하는 것 등 너무도 귀하고 귀한 신앙의 기초를 영아부에서 잘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로운이가 간식 시간에 혼자 기도하고 먹었다는 알림장을 몇 번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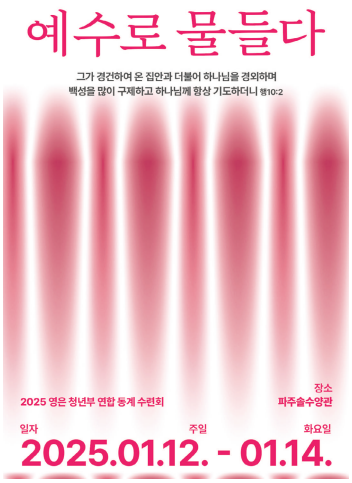
영아부를 통해 로운이도 저희 부부도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전도사님, 요셉반 김경혜 선생님 그리고 수고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영아부를 거쳐가게 되어 아쉽지만, 로운이 동생은 기약할 수 없기에 아쉬운 마음, 감사한 마음만 안고 떠나가겠습니다. 영아부 졸업 후에도 종종 들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로 물들다(행10:2)
– 2025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 –

글 | **양민혁** (청년1부)

1월 12일 주일, 청년들과 교사 206명이 비전홀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2025년 청년부 연합 동계수련회의 막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주 솔수양관에서 진행된 청년부 동계수련회에 첫날 집회에는 청년부 160여 명이 모였고, 파주 솔수양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BASIC 프로젝트 5개년의 마지막 주제인 〈COLOR〉라는 주제 아래 영은의 청년들은 예수로 물들길 결단하며 2박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청년부 동계수련회에서 깊은 깨달음과 변화의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수련회는 저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은 "교회의 세속화, 엉뚱하게 물들다"라는 주제로 이찬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저 또한 SNS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다시 물들기로 결단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김민식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로 물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실 수 있음에도 저는 세상의 유혹과 기준에 휘둘리며 예수님 외의 것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영은 청년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물드는 것"은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제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었습니

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단합니다. 세상에 빠져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연약한 저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녁집회


조별 활동



테루아 찬양팀


저녁집회 찬양


청년1부와 2부 다함께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싶어요!”
–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소감문 –

글 | **임승리** 어린이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1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이틀 동안 교회에서 진행됐다.

평소에는 주말에 늦잠을 잘 수도 있지만 성경학교는 항상 좋고 재미있는 날이라서 이번에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은교회 5층 유년부실에 도착했다. 선생님들이 이름표를 걸어주시면서 크게 환영해 주셨다. 오전 예배로 첫날 성경학교가 열리고 다같이 찬양을 부르며 율동을 따라 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명철 있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말씀하셨다.

점심시간에는 교회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맛있는 짜장면과 군만두를 먹었다.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배를 채우고 교회에 다시 돌아와 공과를 하고 6층 체육관에 가서 미니 운동회를 했다. 나는 2조였는데 판 뒤집기도 하고 사탕 따먹기도 하고 나쁜 마음 공 맞추기도 하며 신나게 놀았다.

다시 유년부실로 돌아와 맛있는 과자와 음료수도 먹고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회 끝나고 먹는 간식은 꿀맛 같았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를 했다. 교회에서의 겨울성경학교 첫날은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다.

둘째 날 주일아침에 일어나 9시 예배를 드리는 아빠와 함께 교회로 출발했다. 도착해서 이름표를 다시 목에 걸고 내가 2조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성경 레크레이션 시간에 성경 인물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공과 시간에 오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며 내가 좋아하는 만들기도 하였다. 오전 11시가 되어 예배가 시작되었다. 나는 앞에 나가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율동을 하며 찬양을 했다. 조금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었다.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와 시상식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닭강정이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다. 선생님께서 상품으로 과자 두 봉지를 챙겨 주셨다. 집에 가서 동생이랑 같이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겨울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반 친구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다음에는 성경학교에 같이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고 싶다.



잔디가 잘릴 때
(엡 5:2)

글 | **구용회 · 백현이** 선교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에베소서 5장 2절)

1. Story of GOD in Kuching_

쿠칭 와서 자주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잔디를 깎는 모습입니다. 비가 몰아치듯 내리는 열대 기후 때문인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잔디들은 어느새 키가 쑥쑥 자라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쿠칭에서는 보호복을 입은 인부들이 잔디를 깎는 모습을 한달에 2~3번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잠시 답답한 공기를 빼기 위해서 차창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전해진 그날의 짙은 바람은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잘려진 잔디에서 전해진 풀내음'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잔디였는데, 잔디의 죽음 속에서 생명이 증명되는 순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죽음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내음을 전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죽음은 사랑의 짙은 내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죽음 혹은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의 죽음과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려진 잔디에서 생명의 풀내음을 전해지듯,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죽음과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생명의 풀내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도 함께 기도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살핌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진실히 이 자리에서 배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짙은 풀내음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사라왁 쿠칭에서

2. 12월 소식

1) 동말레이시아 선교사회 정기 회의

12월 13일, 동말레이시아 예장통합 선교사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말레이시아 선교사회는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사라왁 주와 사바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저희 가정의 '장기선교사 전환'을 위한 시험과 일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전환 시험은 4월 경 치러지며, 회장 선임 및 동료 선교사의 평가서를 총회 선교부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험과 일정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쿠칭 한인교회

13일, 아동부 학생들을 위해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임선교사님 가정을 도와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별이와 원이도 함께 포장을 도우며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5일은 성탄절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되며 새롭게 예배에 온 가정들이 많이 있어 풍성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타국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바르게 배우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쿠친 선교사 모임

25일, 성탄 예배 후 예장통합 선교사 가정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의 사역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오랜만에 아이들을 포함해 전체 가정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쿠칭에서는 통합측 선교사는 4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사바 주에서 사역지를 변경한 선교사님 가정이 추가되어 5가정이 쿠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4) 현지 가정 방문

27일, 말레이어를 가르쳐주시는 Mdm. Ho(마담 호) 선생님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집을 수리하였는데 수리를 마치고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현지인 가정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정을 친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 BEM Tuba교회

28일, TSM 교회 목회자 중 Goh(고) 목사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BEM Tuba(뚜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Tuba 교회는 지난 9월 더누림 선교팀이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최근에 롱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

건축을 위해 주변 숲을 정리하고 주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Tuba 교회에서 있던 일들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 새 학기 준비와 건강

별이의 방학이 다 마치게 되며 25년 새학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에서 쓸 교과서도 받게되니 별이가 언제 이렇게 자랐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이도 이제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처음 겪는 학교 생활이 두렵거나 낯설지 않길 기도하게 됩니다.

몇 달 전, 원이가 근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최근엔 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안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별이는 신경을 많이쓰는지 몸이 경직되어 턱과 코(가슴과 호흡, 두통)에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3. 기도 제목

1) '장기 선교사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현지 청년들의 양육을 위해 함께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준비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현지 가정의 아픔과 상황을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언어 바로잡기 〈2〉

글 | 최광주 목사

이번 달에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와 불필요한 말을 바로 잡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과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물(×) → 예물(○)】

봉헌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희생 제물이 되신 것으로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났고, 신약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물' 이 아닌 '예물' 입니다.

【축하예배(×) → 감사예배(○)】

사람에게 보내는 '축하' 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는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축하' 와 '예배' 는 공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졸업 축하예배' 는 '졸업 감사예배' 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회갑 감사예배, 개업 감사예배, 생일 감사예배 등)

【받들어 봉독하다(×) → 봉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봉독하다' 는 말 속에 이미 '받들어' 라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기도의 서두 : 성경구절을 인용한 다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고 이미 기도를 시작한 회중을 교훈하는 것은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서두에 하나님을 부른 후 성경구절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감사, 소원 등을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의 내용은 현재형인데 그 끝을 과거형 '기도하였습니다.' 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인 '기도합니다.' 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너, 한국인 아니지?

글 | **이숙경** 기자

최근 지인에게 들은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니, 우스갯소리라기엔 조금 부끄럽고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다. 그치가 말하기를, 똑같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해도 동남아 사람과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 구미 사람과 결혼하면 '글로벌 가정'이란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인은 서양 문화권에서 숱한 인종차별을 당해왔다. 김치 냄새나 마늘 냄새가 난다며 따돌림을 당했다는 재외국민들의 경험담은 워낙 자주 듣다보니 무슨 통과의례 같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의 아시아인은 대개 키가 작고, 수전노이며, 눈이 찢어졌고, 얼레벌레 행동하는 열등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게 분노만 할 일은 아니다. 한국인들은 아시아인 내에서도 또 계급을 나눈다. 동북아시아인 밑에 동남아시아인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도 숱한 차별을 당해왔으면서, 또 거리낌없이 인종차별을 한다. '똥남아인'이라든가 '깜둥이'라든가 '짱깨' 같은, 외국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쉽게 들린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외국인을 만나면 불법체류자일 것이라 넘겨짚는다. 참으로 부끄러운 민낯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등급을 나눈다. 인종차별은 유구한 역사 중에 사라졌던 적이 없다.

성경 시대에도 그렇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인을 차별하고 멸시해왔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늘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대하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을 전하셨고(요한복음 4장), 강도 당한 이를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시를 들며 민족이나 계급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우치게 하셨다(누가복음 10장).

성경 속 이방 사람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는 바로 '룻'이다. 그녀는 모압 사람으로,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지냈다.

모압인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못박아 기술했을 정도로 차별을 당해 왔다. 그러나 룻은 모압 사람임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켰다. 결국 그녀는 보아스의 눈에 띄어 결혼하게 된다. 그들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의 조부이다. 유대인에게 차별당해 오던 모압 출신의 여인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먼 조상이란 뜻이다.

우리가 받은 차별과 핍박에 분노하기만 하는 건 이제 졸업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타인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K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그 발전된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뒤떨어진 차별주의와 국수주의부터 뜯어고쳐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고 '못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이방 여인 룻의 혈통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이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에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희수
파송선교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